

MEIC Dry Bulk Weekly Report

본 Weekly Report는 정식 배포를 위한 테스트 버전입니다.

www.meic.kr

MEIC 평균운선료 (단위:USD/DAY)							선박 연료유 가격 (단위:USD)			
구 분	MAY-13	JUN-13	증감	01-AUG	08-AUG	증감	항만명	01-AUG	08-AUG	증감
케이프	6,800	8,720	▲1,920	16,155	14,170	▼1,985	IFO380 로테르담	599.0	597.0	▼ 2.0
							싱가포르	597.5	601.0	▲ 3.5
							부산	626.0	624.5	▼ 1.5
파나마스	7,035	6,280	▼ 755	8,592	8,151	▼ 559	지브랄타	620.0	621.5	▲ 1.5
							홍콩	612.0	615.5	▲ 3.5
수프라막스	9,894	10,295	▲ 401	10,772	10,557	▼ 215	MDO 로테르담	873.0	890.0	▲17.0
							싱가포르	912.0	913.5	▲ 1.5
							부산	951.5	949.5	▼ 2.0
핸디	6,604	6,524	▼ 80	6,844	6,737	▼ 107	지브랄타	945.5	964.5	▲19.0
							홍콩	927.5	930.0	▲ 2.5

해운시황

케이프		파나마스		수프라막스		핸디	
-----	--	------	--	-------	--	----	--

MEIC 선가 / 운임지수

※ ☆: 신설 또는 수정 항로

MEIC 중고선 가격 (단위:DWT,USD백만)				MEIC 신조선 가격 (단위:DWT,USD백만)		
선형	RESALE	5Y	10Y	선형	PRICE	
케이프 (180K)	42.33	33.08	20.92	케이프	180K	47.00
파나마스 (74K)	28.33	21.17	15.32	파나마스	74K	26.08
					82K	27.45
					92K	28.40
수프라막스 (58K)	26.50	20.95	15.25	수프라막스	58K	24.88
					64K	25.75
핸디 (33K)	21.72	17.42	12.71	핸디	33K	21.58

목 차

주간 동향	2
케이프	3
파나마스	4
수프라막스/핸디	6
FFA	8
원자재	9
선박 연료유	13
항만 동향	14
선박매매 동향	15
신조선	16
중고선	17
선박해체	18
세계 건화물 선대	19
세계 경제	20
주간 이슈	21
MEIC 포커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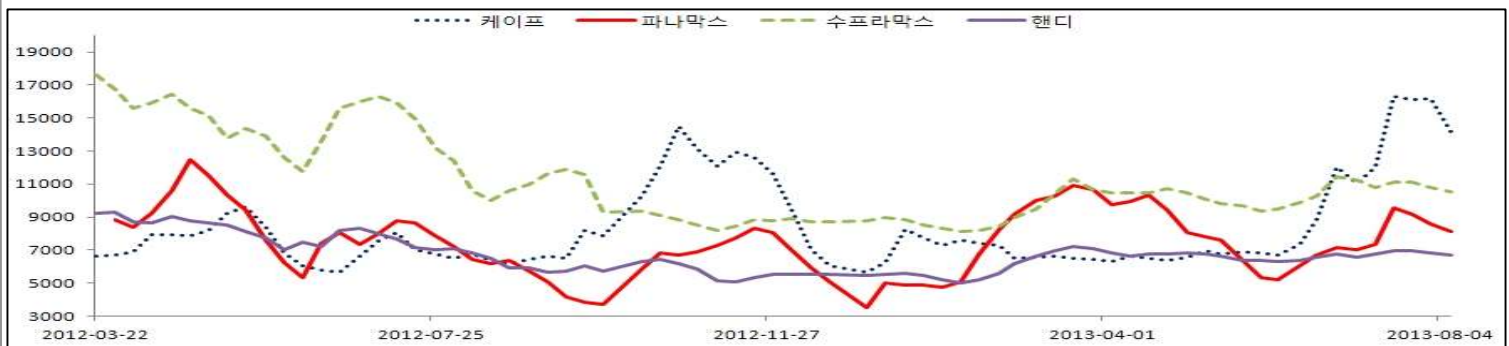
C A P E	항로번호	항로	운임 (USD/TON)	항로번호	항로	운선료 (USD/DAY)
	MC1	Saldanha Bay-Qingdao	14.38	MC6	PRC/Japan-Brazil-PRC/Japan	12,840
	MC2☆	W.Australia-Qingdao	8.38	MC7☆	PRC/Japan-EAustralia-PRC/Japan	12,900
	MC3	R.Bay-Qingdao	13.00	MC8☆	A.RA/Gib-Bolivar-A.RA/Gib	6,740
	MC4☆	Newcastle-Zhoushan	11.97	MC9☆	ARA/Gib-USEC/Canada-PRC/Japan	24,200
	MC5☆	Tubarao-Qingdao	20.05			
P' M X	항로번호	항로	운선료 (USD/DAY)	항로번호	항로	운선료 (USD/DAY)
	MP1☆	S.PRC-Indonesia-S.PRC	5,713	MP5☆	Busan-CIS-N.PRC	6,175
	MP2	F.EAST-Australia-EC India	6,319	MP6☆	Passing Gib-USG-F.EAST	15,538
	MP3☆	PRC-NOPAC or Australia-PRC	6,338	MP7☆	Passing Gib-USG-Skaw/Passero	9,275
	MP4	S'pore-ECSA-F.EAST	7,925			
S' M X	항로번호	항로	운선료 (USD/DAY)	항로번호	항로	운선료 (USD/DAY)
	MS1☆	PRC-NOPAC or Australia-PRC	7,533	MS5☆	S.PRC - Indonesia - ECIndia	8,233
	MS2	USG-S'pore/Japan	20,133	MS6☆	S.PRC - Indonesia - PRC	8,083
	MS3	CIK via Indonesia/Phil- PRC (Nickel Ore)	7,933	MS7☆	USG-Skaw/Passero	18,633
	MS4	S'pore/Japan-USG	3,350			
H S	항로번호	항로	운선료 (USD/DAY)	항로번호	항로	운선료 (USD/DAY)
	MH1	F.EAST-SE Asia	6,267	MH4☆	Busan-CIS-F.EAST	6,050
	MH2	PG-WC India-F.EAST	6,900	MH5☆	Skaw/Passero-USG-Skaw/Passero	8,000
	MH3	S.PRC-SE Asia-F.EAST	6,467			

주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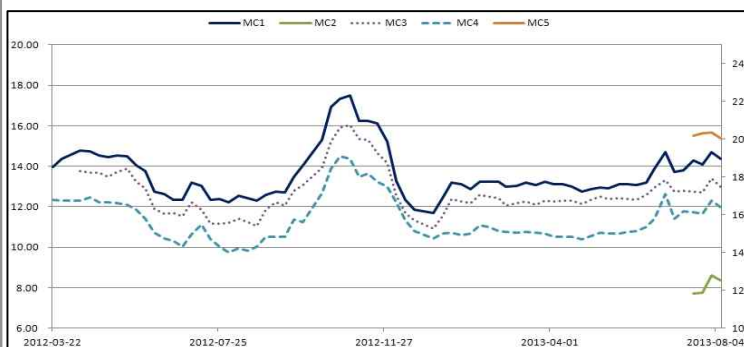
◎ 전체 선형의 물동량 둔화 ◎

- ▶ 이번 주 건화물 시장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이슬람국가들이 라마단 종료 휴일로 인해 거래활동을 제한하면서 전 선형이 운임 하락세를 나타냈다
- ▶ 특히 콜롬비아 Drummond사 파업으로 인해 석탄 물동량이 제한되고 있는 케이프시장과 곡물시즌 종료로 인해 물동량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미국과 남미 수출항로의 운임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 한편, POSRI가 발표한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선진국 경제는 재정긴축→경기침체→세수감소→부채증가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진 및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화물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흥국의 경우 경기부양책 및 내수 확대에 힘입어 소폭의 개선은 기대되나, 대외 교역 위축으로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수출 부진 및 공급과잉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7% 중반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는 정부의 경기부양 및 정치개혁에도 불구하고 수출부진이 지속되며 5% 성장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브라질 역시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물가상승, 무역수지 악화 등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 ▶ 다음 주 건화물 시장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이 시장에 복귀하면서 태평양 수역의 석탄 물동량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대서양 수역의 신규 수요 제한 영향으로 대부분의 선형이 운임 약보합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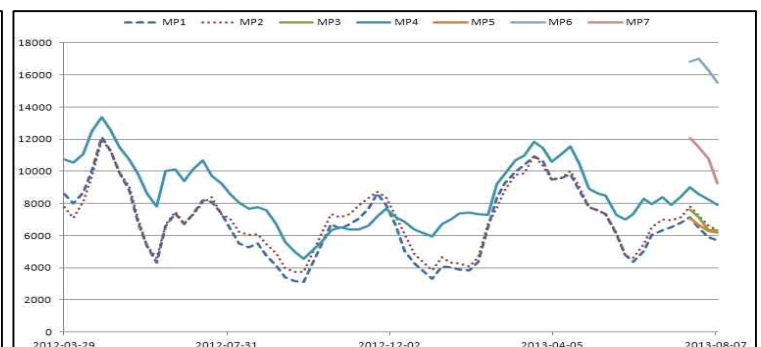
MEIC 평균 용선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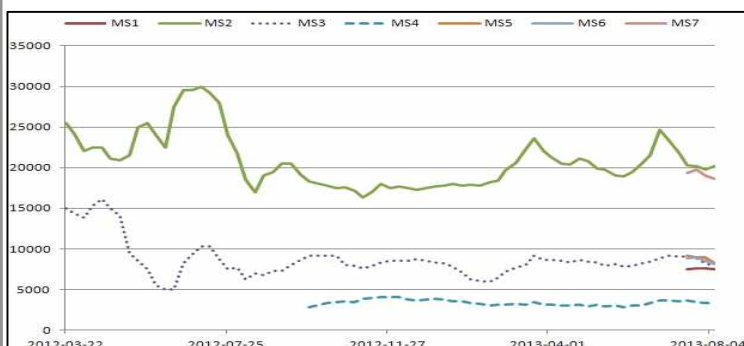
MEIC 케이프 항로별 운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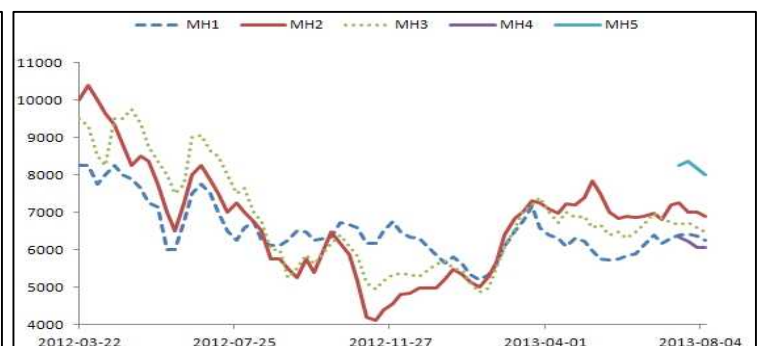
MEIC 파나마스 항로별 용선료 추이



MEIC 수프라막스 용선료 추이



MEIC 핸디 용선료 추이



케이프

◎ 철광석 신규수요 제한 ◎

- ▶ 이번 주 케이프 시장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휴일로 인해 철광석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운임 약보합세를 기록했다.
- ▶ 태평양 수역에서는 라마단 종료 휴일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휴일을 맞이하면서 철광석과 석탄 신규수요가 동시에 제한되었다. 일부 서호주-극동 철광석 운송계약에서 즉시 이용가능한 선박의 경우 USD9.0/Ton에 근접하는 운임수준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전주대비 소폭 하락한 USD8.38/Ton 수준을 기록했다.
- ▶ 대서양 수역에서는 콜롬비아 석탄 운송 차질 영향으로 MC8항로의 용선료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T/A R/V항로의 운임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브라질-극동 F.HAUL 항로 역시 9월 선적물의 운임 상황이 USD20/Ton 이하까지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 ▶ 한편, 이번 주 화물운송 성악 가운데 흑해지역의 러시아 Yuzhny항에서 중국 Qingdao로 향하는 철광석 항해용선 거래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동 계약은 8월 말 선적기준 USD19.8/Ton 수준에 성악되었으며, 이는 중국 케이프선 철광석 수입 루트가 호주, 브라질, 남아공에 이어 흑해지역까지 확대되어 호주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톤마일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 다음 주 케이프 시장은 싱가포르 등 이슬람 국가들이 시장에 복귀하면서 태평양 수역의 신규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서양 수역은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MEIC 용선료 및 운임

항로번호	항로상세	MAY	JUN	01-AUG	08-AUG	변동	현물시장	BID	OFFER	격차
MC1	160,000MT Saldanha Bay-Qingdao	13.00	13.70	14.71	14.38	▼ 0.33	Tubarao-Rotterdam	8.25	9.00	0.75
MC2	160,000MT W.Australia-Qingdao	-	-	8.61	8.38	▼ 0.23	W.Aus-Qingdao	8.25	8.50	0.25
MC3	150,000MT R.Bay-Qingdao	12.42	12.79	13.39	13.00	▼ 0.39	Tubarao-Qingdao	19.25	20.25	1.00
MC4	130,000MT Newcastle-Zhoushan	10.68	11.46	12.30	11.97	▼ 0.33	R.bay-Rotterdam	8.00	8.75	0.75
MC5	160,000MT Tubarao-Qingdao	-	-	20.38	20.05	▼ 0.33	S/PERIOD	13,500	14,500	1,000
MC6	PRC/Japan-Brazil-PRC/Japan	6,800	8,720	13,260	12,840	▼ 420	1 YEAR	13,500	14,500	1,000
MC7	PRC/Japan-E.Australia-PRC/Japan	-	-	13,520	12,900	▼ 620	3 YEARS	15,500	17,500	2,000
MC8	A.R.A/Gib-Bolivar-A.R.A/Gib	-	-	12,640	6,740	▼5,900	5 YEARS	18,000	20,000	2,000
MC9	ARA/Gib-USEC/Canada-PRC/Japan	-	-	25,200	24,200	▼1,000	10 YEARS	18,500	20,500	2,000
	T/C Average(180,000DWT)	-	-	16,155	14,170	▼1,985				

정기용선계약

구분	VSL NAME	DWT	BUILT	DEL	REDEL	LAYCAN	DETAILS	HIRE (USD/DAY)	CHARTERER
대서양	Orange Tiara	181,396		Cape Passero	Cape Passero	12/14Aug	T/A Round	5,500	Cargill
	Cape Elise-EdF relet	175,000	2005	Falmouth	Skaw-Cape Passero	Spot	T/A Round	5,500	SwissMarine
태평양	Anangel Conqueror	179,719	2012	Nagoya	S'pore-Japan	12/15Aug	Trip via NoPac	15,500	Oldendorff
PERIOD	RZS Harmony	171,779	1999	Rizhao	WW	02-Aug	4/7MOS	14,000	Cargill

항해용선계약

구분	VSL NAME	CARGO Q'TY	L/PORT	D/PORT	LAYCAN	FRT (USD/TON)	TERMS	CHARTERER
대서양	Iron Fritz-EdF relet	150,000/10	Puerto Bolivar	Rotterdam	10/20Aug	9.2	Scale/30,000shinc	SwissMarine
	Firdt Eagle	150,000/10	Puerto Bolivar	Rotterdam	End Aug/Ely Sept	8.6	50,000/25,000shinc	SwissMarine
F/HAUL	Camilla Bulker	160,000/10	Guaiba	Qingdao	1/10Sept	20.4	Total 3.75% scale/30,000shinc	Noble
	TBN	160,000/10	Tubarao	Qingdao	End Aug	20.25	Scale/30,000shinc	Noble
	WISOCO TBN	160,000/10	Tubarao	Qingdao	20/29Aug	20.05	Scale/30,000shinc	Oldendorff
태평양	Cargill TBN	170,000/10	Whyalla	China	27Aug/4Sept	12.25	40,000shinc/30,000shinc	Arrium
	Safbulk TBN	170,000/10	Port Hedland	Qingdao	16/20Aug	8.55	Scale/30,000shinc	BHP Billiton
	Safbulk TBN	160,000/10	Dampier	Qingdao	25/30Aug	8.4	Scale/30,000shinc	BHP Billiton
	Dong-A Ether	160,000/10	Saldanha	Qingdao	30/31Aug	14.4	Scale/30,000shinc	Anglo America
	Bao-NYK TBN	170,000/10	Port Hedland	Qingdao	25/30Aug	8.45	Scale/30,000shinc	BHP Billiton
	TBN	160,000/10	Dampier	Qingdao	20/25Aug	8.5	Scale/30,000shinc	Rio Tinto
	Ocean Queen	160,000/10	Saldanha	Qingdao	15/18Aug	14.75	Scale/30,000shinc	Anglo America
	TBN	160,000/10	Dampier	Qingdao	20/25Aug	8.5	Scale/30,000shinc	Rio Tinto
	TBN	160,000/10	Dampier	Qingdao	24/30Aug	8.5	Scale/30,000shinc	Rio Tinto
	TBN	160,000/10	Saldanha	Qingdao	1/5Sept	14.35	Scale/30,000shinc	Oldendorff
	Mona Pegasus-Cargill relet	160,000/10	Dampier	Qingdao	14/16Aug	Approx 8.90	Scale/30,000shinc	FMG

파나막스

◎ 남미와 미국 걸프지역 물동량 급감 ◎

- ▶ 이번 주 파나막스 시장은 대부분의 항로에서 약보합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미국 걸프지역에서 극동과 유럽지역으로 운송되는 항로의 운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 ▶ 태평양 수역에서는 동 호주 석탄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신규수요를 보이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신규수요가 라마단 종료 휴일로 인해 제한되면서 전반적인 운임 약보합세를 기록했다.
- ▶ 대서양 수역은 남미와 미국 걸프 지역의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T/A R.V항로와 F.HAUL항로의 운임 하락폭이 태평양 수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 한편, 미국의 6월 석탄 수출량이 전월대비 150만톤 감소한 750만톤에 머물면서 지난 2012년 11월 이후 월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 상반기 전체 수출량은 5,280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30만톤 감소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수출량이 전년동기대비 280만톤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인도로 향하는 수출량이 170만톤으로 가장 많은 수출 감소를 보였다. 반면 인도의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은 더욱 증가되면서 이번 시즌 전체 수입량이 전년대비 40% 증가한 7,700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파나막스 시장의 경우 톤마일 증가효과를 발생시키는 미국-극동 항로의 신규수요가 제한되면서 공급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 다음 주 파나막스 시장은 남미와 미국 걸프지역의 신규 수요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대서양 수역의 운임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태평양 수역의 경우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이 회복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서양 수역에 비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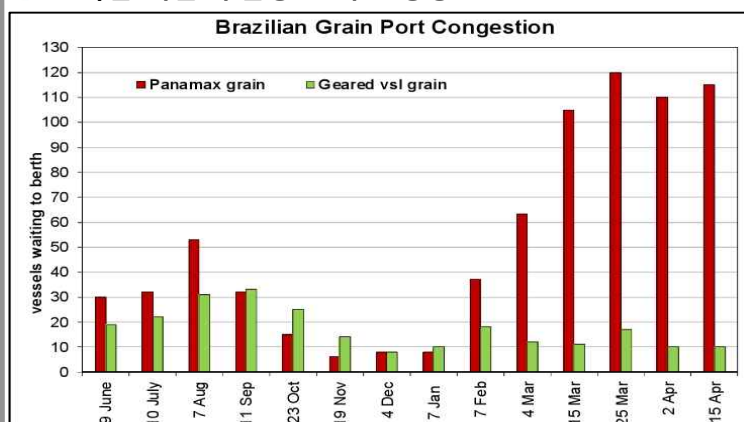
MEIC 용선료

항로번호	항로상세	MAY	JUN	01-AUG	08-AUG	변동
MP1	S.PRC-Indonesia-S.PRC	6,720	5,447	5,875	5,713	▼ 162
MP2	F.EAST-Australia-E.C India	6,715	5,900	6,625	6,319	▼ 306
MP3	PRC-NOPAC or Australia-PRC	-	-	6,350	6,338	▼ 12
MP4	S'pore-ECSA-F.EAST	8,068	7,978	8,238	7,925	▼ 313
MP5	Busan-CIS-N.PRC	-	-	6,300	6,175	▼ 125
MP6	Passing Gib-USG-F.EAST	-	-	16,313	15,538	▼ 775
MP7	Passing Gib-USG-Skaw/Passero	-	-	10,800	9,275	▼ 1,525
T/C Average(74,000DWT)		-	-	8,592	8,151	▼ 441

현물시장

구분	BID	OFFER	격차
T/A R.V	9,000	9,650	650
PAC R.V	5,750	6,750	1,000
TRIP F.EAST	14,500	15,500	1,000
TRIP EUROPE	-500	0	500
S/PERIOD ATL	11,000	12,500	1,500
S/PERIOD PAC	7,750	8,500	750
1 YEAR ATL	8,750	9,750	1,000
1 YEAR PAC	8,250	8,750	500
2 YEARS	8,500	9,500	1,000
3 YEARS	9,000	10,500	1,500
5 YEARS	10,000	11,500	1,500

브라질 곡물 수출항만 체선 동향



MEIC 파나막스 VS 수프라막스 평균용선료 비교



MEIC Dry Bulk Weekly Report

정기용선 계약

구분	VSL NAME	DWT	BUILT	DEL	REDEL	LAYCAN	DETAILS	HIRE (USD/DAY)	CHARTERER
대서양	Langdar	82,269	2013	US Gulf	Cape Passero	22/26Aug	Trip via Italy	10,000+400,000(BB)	Eships
	Bergen Trader I	81,600	2012	Antwerp	Skaw-Cape Passero	Spot	2/3LLS 1st Riga/US Gulf with pig iron	9,500	Noble
	Red Rose	76,629	2003	Ghent	Continent	3/5Aug	Trip via Murmansk	9,500	Norden
	Unicorn Ocean	78,888	2008	Port Talbot	Skaw-Cape Passero	12/14Aug	2LLS	10,250	CNR
F/HAUL	Navios Gemini S	64,636	1994	Cape Passero	S'pore-Japan	5/7Aug	2LLS	13,000	Grain House
	Tuofu 6	81,588	2012	EC South America	S'pore-Japan	28Aug/2Sept	Trip	15,000+500,000(BB)	CNR
	NBA Vermeer	95,708	2012	EC South America	Indonesia	20/25Aug	Trip	15,500+550,000(BB)	CJ International
	Arethusa	75,319	2001	Santos	Japan	18/21Aug	Trip	15,250+525,000(BB) option redel China-S.Korea 15,750+575,000(BB)	Louis Dreyfus
	Chris	76,629	2006	Port Talbot	S'pore-Japan	7/11Aug	Trip via Murmansk	16,500	Ultrabulk
	Alexandra	74,756	2001	Gibraltar	China	10/15Aug	Trip via Klaipeda int fertilizers	15,000	Oldendorff
태평양	Marbella	72,561	2000	Osaka	S'pore-Japan	Ppt	Trip via Nopac	5,500	CNR
	Shi Dai 2	76,510	2007	Guangzhou	China	Spot	Trip via Adelaide	5,500	CNR
	Sonoma	74,785	2001	EC Australia	S'pore-Japan	15/20Aug	Trip	5,500+300,000(BB)	Minsco
	Capt. Stefanos	74,077	2002	Indonesia	India	5/10Aug	Trip	7,500+115,000(BB)	Klaveness
	Shou Shan 2	74,009	1997	Adang bay	Sual	Spot	Trip	6,000+90,000(BB)	Oldendorff
	Poseidon	74,350	2002	Cai Mep, Vietnam	Yemen	4/9Aug	Trip via Kwinana	9,250	Oldendorff
	Byrant	76,595	2009	Indonesia	S'pore-Japan	9/12Aug	Trip	7,200+115,000(BB)	Cargill
	Giant Pescadores	71,671	1998	Mariveles	S'pore-Japan	9/10Aug	Trip via Indonesia	6,000	CNR
	Velshedda	82,172	2013	Mizushima	S'pore-Japan	Ppt	Trip via US Gulf int grain	9,750	Phaethon
	Xin Hai	82,269	2013	Pohang	China	10/15Aug	Trip via Nopac int grain	7,500	Noble
	Osmarine	76,596	2006	Bayuquan	Japan	9/14Aug	Trip via Long Beach int petcoke	6,500	Norden
	Lake Dahlia	78,802	2009	Kinnura	Japan	9/12Aug	Trip via EC Australia	6,750	MOL
	PSCO Plum	76,801	2004	Indonesia	Japan	18/23Aug	Trip	6,500+150,000(BB)	Norden
B/H AUL	Perly - SwissMarine relet	77,820	2002	Yuzhny	Skaw-Cape Passero	Spot	2LLS	9,000+10,000(BB)	E.On
PE RI OD	Nirefs	75,311	2001	Zhanjiang	WW	4/9Aug	12/15MOS	8,900	CNR
	Constantinos	87,477	2011	Dandong	WW	Ppt	11/13MOS	8,500	Bunge
	Bottiglieri Franco Vela	93,273	2010	Cape Passero	WW	10/12Aug	4/6MOS	13,000	Aquavita
	Paraskevi	74,300	2003	Dalian	WW	13/20Aug	7/9MOS	8,500	CNR

항해용선 계약

구분	VSL NAME	CARGO Q'TY	L/PORT	D/PORT	LAYCAN	FRT (USD/TON)	TERMS	CHARTERER
대서양	TBN	70,000/10	Mississippi River	Rotterdam	16/30Aug	16.0	20,000shinc/25,000shinc	TTMI
	TBN	70,000/10	Gramercy	Immingham	13/20Aug	15.5	20,000shinc/25,000shinc	Klaveness
	Lia M	70,000/10	Norfolk	Antwerp	20/22Aug	11.9	30,000/25,000shinc	ZKS
F/HAUL	TBN	70,000/10	Mississippi River	Gangavaram option Vizakhapatnam	5/17Aug	37.5	18,000/25,000shinc option 20,000satshex	HC Trading
	Edelweiss	60,000/410	Paranagua	S.Korea	14/19Aug	35.5	8,000/7,250satshex	Transgrain
	Iolcos Destiny	70,000/10	Beira	Bayuquan	27Aug/2Sept	17.0	10,000/15,000shinc	Vale
태평양	TBN	70,000/10	IBT	Mauban	19/25Aug	5.25	35,000shinc/25,100shinc	Catragpa
	TBN	65,000/10	Balikpapan	Masinloc	10/19Aug	6.1	30,000/20,000shinc	Cobelfret
B/HAUL	Klaveness TBN	70,000/10	CMT	Rotterdam	24Aug/4Sept	15.25	25,000shinc bends	TTMI

수프라막스/핸디

◎ 태평양 수역 석탄 물동량 감소 ◎

- ▶ 이번 주 수프라막스/핸디 시장은 태평양과 대서양 수역 모두 전반적인 운임 약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항로와 미국걸프-Continet 항로의 운임 하락폭이 다른 항로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 ▶ 태평양 수역에서는 지난 목요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들의 휴일로 인해 석탄을 비롯한 신규 수요가 제한되면서 운임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일부 중동과 서 인도지역에서 SE Aisa지역으로 향하는 Pet. Coke, 보크사이트 등의 신규수요가 일부 관측되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했다.
- ▶ 대서양 수역은 미국 걸프지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석탄과 곡물 운송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는 대신 흑해지역에서 서아프리카로 향하는 곡물 운송 성악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 ▶ 한편, 세계 1위와 8위 소맥 수입국인 이집트와 이라크가 기존의 주요 수입국이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흑해지역과 호주지역의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조작 우려감으로 인해 미국 산 소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이집트는 최근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산 소맥 6만톤을 각각 수입했으며, 이집트 역시 호주와 캐나다산 소맥을 15만톤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중해 국가들의 흑해산 수입 증가는 톤마일 감소와 함께 중소형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 다음 주 수프라막스/핸디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신규수요가 제한되면서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과잉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운임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MEIC 수프라막스 용선료

항로 번호	항로상세	MAY	JUN	01-AUG	08-AUG	변동
MS1	PRC-NOPAC or Australia-PRC	-	-	7,550	7,533	▼ 17
MS2	USG-S'pore/Japan	19,693	21,525	19,750	20,133	▲ 383
MS3	CJK via Indonesia/Phil - PRC (Nickel Ore)	8,107	8,342	8,217	7,933	▼ 284
MS4	S'pore/Japan-USG	2,963	3,263	3,367	3,350	▼ 17
MS5	S.PRC-Indonesia-EC.India	-	-	8,933	8,233	▼ 700
MS6	S.PRC-Indoneisa-PRC	-	-	8,517	8,083	▼ 434
MS7	USG-Skaw/Passero	-	-	19,067	18,633	▼ 434
T/C Average(5,800DWT)		-	-	10,772	10,557	▼ 215

현물시장

구분	BID	OFFER	격차
Trip Cont-USG	4,250	5,000	750
Trip USG-Cont	17,500	18,750	1,250
NOPAC R.V	8,000	8,500	500
PAC R.V	9,000	9,500	500
Cont/F.EAST	13,500	14,250	750
F.EAST/EUROPE	4,000	5,000	1,000
S/PERIOD ATL	10,250	11,000	750
S/PERIOD PAC	9,000	9,750	750
1 YEAR ATL	9,250	9,750	500
1 YEAR PAC	8,750	9,250	500
2 YEARS	9,500	10,500	1,000

MEIC 핸디 용선료

항로 번호	항로상세	MAY	JUN	01-AUG	08-AUG	변동
MH1	F.EAST-SE Asia	5,893	6,062	6,367	6,267	▼ 100
MH2	PG/WC India-F.EAST	7,313	6,908	7,017	6,900	▼ 117
MH3	S.PRC/SE Asia-F.EAST	6,607	6,000	6,600	6,467	▼ 133
MH4	Busan-CIS-F.EAST	-	-	6,067	6,050	▼ 17
MH5	Skaw/Passero-USG-Skaw/Passero	-	-	8,167	8,000	▼ 167
T/C Average(33,000DWT)		6,604	6,524	6,844	6,737	▼ 107

현물시장

구분	BID	OFFER	격차
Trip Cont-MED/USG	4,500	5,000	500
Trip USG-Cont-MED	12,000	13,000	1,000
NOPAC R.V	6,750	7,750	1,000
PAC R.V via SEAS	6,500	7,750	1,500
F.EAST/EUROPE	3,500	4,500	1,000
S/Period ATL/ATL	7,250	8,250	1,000
S/Period PAC/PAC	7,000	8,000	1,000
1 Year ATL	7,500	8,500	1,000
1 Year PAC	7,000	8,000	1,000
2 Years	7,750	8,750	1,000
3 Years	8,250	9,250	1,000

MEIC Dry Bulk Weekly Report

수프라막스 정기용선 계약

구분	VSL NAME	DWT	BUILT	DEL	REDEL	LAYCAN	DETAILS	HIRE (USD/DAY)	CHARTERER
대서양	African Kingfisher	55,476	2009	US Atlantic	E.Med	Spot	Trip int scrap	Approx 17,250	Ultrabulk
	Global Venus	58,635	2013	US Gulf	Brazil	Spot	Trip	15,000	ADMI
	Xin Rui Hai	56,092	2012	US Gulf	E.Med	Spot	Trip	Approx 18,000	ADMI
F/HAUL	Nord Discovery	52,454	2006	Bunbury	PG-WC India	18/20Aug	Trip	8,500+150,000(BB)	MUR
태평양	Sunville 2	56,000	2013	Nopac	Philippines	Mid/End Aug	Trip	Approx 8,350+365,000(BB)	SK Shipping
	Far Eastern Venus	53,487	2006	Haldia	China	6/7Aug	Trip via Indonesia int nickel ore	6,600	Tongli
	Hong Bao Shi 2	56,727	2011	Guangzhou	China	5/10Aug	Trip via Indonesia int iron ore	8,000	Tongli
	Sunville 2	56,000	2013	Nopac	S'pore-Japan	Mid-End Aug	Trip	8,350+360,000(BB)	CNR
	Orient Orchid	55,598	2012	Nopac	S'pore-Japan	Mid-End Aug	Trip	8,750+Approx 370,000(BB)	Pacbasin
	Ten Yoshi Maru	58,470	2011	Visakhapatnam	China	Spot	Trip int bauxite	8,000	CNR
	Dragon Glory	56,778	2012	S'pore	China	Spot	Trip via Indonesia int bauxite	Approx 11,000	CNR
B/HAUL	Transtime	56,726	2012	Lianyungang	Gibraltar	Spot	Trip int steels & generals	4,000 1st 65days 8,100daily balance	Suns International

수프라막스 항해용선 계약

구분	VSL NAME	CARGO Q'TY	L/PORT	D/PORT	LAYCAN	FRT (USD/TON)	TERMS	CHARTERER
F/HAUL	TBN	60,000/10	Upriver+Bahia Blanca	N.China	1/10Aug	39.5	8,000satshex/10,000satshex	Cosco
태평양	Navios Titan	65,000/10	South East Kalimantan	Dahej	3/10Jul	9.3	10,000shinc/30,000shinc	Libra

핸디 정기용선 계약

구분	VSL NAME	DWT	BUILT	DEL	REDEL	LAYCAN	DETAILS	HIRE (USD/DAY)	CHARTERER
대서양	Federal Miramichi	27,740	2005	Brunsbüttel	Gijon	Ppt	Trip via Archangel int coal	7,000	Centurion
	Jin Yu	38,462	2012	Houston	Brazil	Ppt	Trip	11,400	Clipper
	Bunan Wisdom	38,168	2012	Dakar	Black Sea	Ppt	Trip via West Africa	8,500	Oldendorff
	San Felice	34,053	2010	Panama City Florida	Continent	Ppt	Trip int woodpellets	Approx 13,000	Lauritzen
태평양	Gladiator	28,341	2008	S.China	S'pore-Japan	Ppt	2LLS	7,500 option redel India 8,500 daily	CNR

FFA 시장

FFA 거래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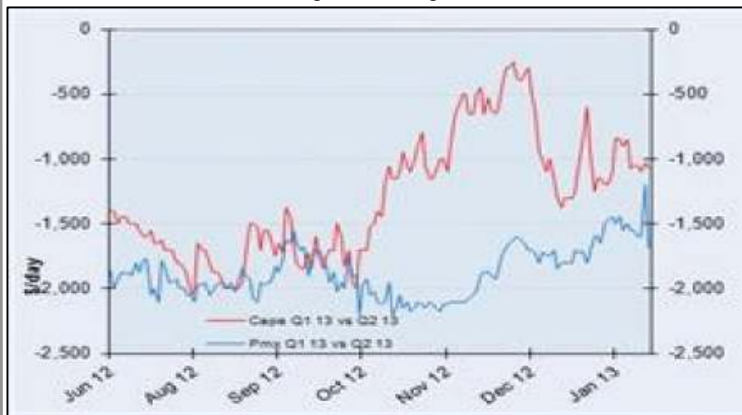
구 분	케이프						파나막스					
	BID			OFFER			BID			OFFER		
	01-AUG	08-AUG	증감	01-AUG	08-AUG	증감	01-AUG	08-AUG	증감	01-AUG	08-AUG	증감
AUG13	12,900	10,850	▼2,050	13,000	11,000	▼2,000	7,800	7,400	▼ 400	7,900	7,500	▼ 400
SEP13	15,450	13,150	▼2,300	15,550	13,300	▼2,250	8,000	8,050	▲ 50	8,050	8,150	▲ 100
Q413	16,950	16,600	▼ 350	17,050	16,750	▼ 300	8,750	8,900	▲ 150	8,800	9,000	▲ 200
Q114	10,700	10,450	▼ 250	10,800	10,600	▼ 200	7,350	7,600	▲ 250	7,400	7,700	▲ 300
Q214	12,950	12,700	▼ 250	13,050	12,900	▼ 150	8,700	8,800	▲ 100	8,800	8,950	▲ 150
CAL14	14,300	14,150	▼ 150	14,400	14,300	▼ 100	7,950	8,100	▲ 150	8,000	8,150	▲ 150
CAL15	15,450	15,200	▼ 250	15,550	15,350	▼ 200	8,525	8,600	▲ 75	8,600	8,700	▲ 100
CAL16	16,400	16,200	▼ 200	16,500	16,400	▼ 100	9,300	9,400	▲ 100	9,450	9,500	▲ 50

구 분	수프라막스						핸디					
	BID			OFFER			BID			OFFER		
	01-AUG	08-AUG	증감	01-AUG	08-AUG	증감	01-AUG	08-AUG	증감	01-AUG	08-AUG	증감
AUG13	9,250	9,250	-	9,400	9,350	▼ 50	7,300	7,400	▲ 100	7,500	7,550	▲ 50
SEP13	9,250	9,200	▼ 50	9,400	9,350	▼ 50	7,250	7,250	-	7,500	7,450	▼ 50
Q413	9,450	9,500	▲ 50	9,550	9,550	-	7,550	7,500	▼ 50	7,800	7,750	▼ 50
Q114	8,100	8,300	▲ 200	8,250	8,450	▲ 200	7,200	7,050	▼ 150	7,500	7,200	▼ 300
Q214	9,350	9,350	-	9,550	9,600	▲ 50	8,100	8,100	-	8,350	8,300	▼ 50
CAL14	9,050	9,100	▲ 50	9,200	9,200	-	7,500	7,500	-	7,650	7,600	▼ 50
CAL15	9,200	9,200	-	9,350	9,300	▼ 50	8,200	8,050	▼ 150	8,400	8,350	▼ 50
CAL16	9,350	9,400	▲ 50	9,450	9,500	▲ 50	9,150	9,150	-	9,500	9,4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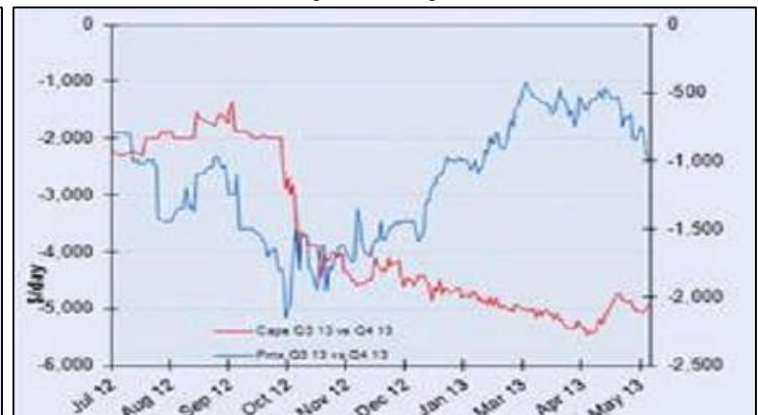
주간
동향

- ▶ 이번 주 FFA 시장은 현물시장의 약세와 함께 케이프 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상대적으로 파나막스와 수프라막스 선형은 현물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함
- ▶ 케이프 FFA 가격은 AUG13, SEP13물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Q413물 이후 물에서는 약보합 수준을 나타냄
- ▶ 파나막스 FFA 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현물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AUG13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에서 상승세를 이어감
- ▶ 수프라막스 FFA 가격은 보합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Q114물에서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냄
- ▶ 핸디 FFA 가격은 대부분의 물에서 약보합세를 기록함

케이프 & 파나막스 Q113 vs Q213 가격차이



케이프 & 파나막스 Q313 vs Q413 가격차이



※ 빨간선 : 케이프, 파란선 : 파나막스, 단위 : USD/DAY

원자재

→ 철광석 시장

◎ 인도 철광석 수입국 전환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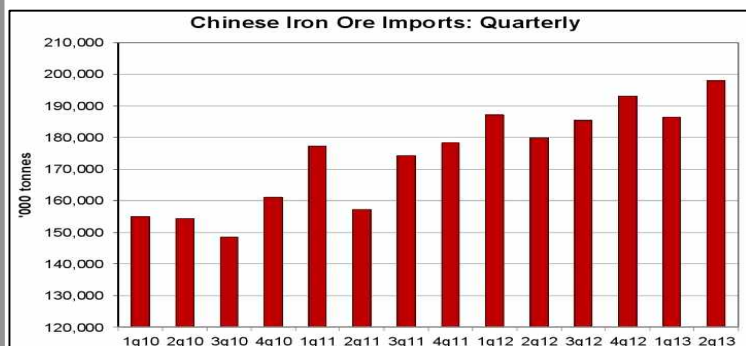
- ▶ 인도의 이번 시즌 철광석 생산량이 Goa주의 생산금지와 Karnataka주의 생산 지연 등의 영향으로 1억톤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철광석 수출량 역시 700~800만 톤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지난 시즌 1억 1,500만톤의 철광석을 생산하여 1,500만톤을 수출했지만, 정부의 환경규제에 따른 생산 금지와 수출 세금 증대 영향으로 이번 시즌 큰 폭의 수출 감소를 기록할 전망이다.
- ▶ 반면 자국의 철광석 생산 감소 영향으로 수입은 증대되면서 이번 시즌 2,400만톤 가량의 수입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인도 광산 개발업체들의 투자 회피 영향으로 향후 8년간 추가 생산 가능량이 5,000만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도의 철광석 수입 의존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입증하듯 Karnataka주의 철광석 생산이 환경평가 합격점을 받은 카테고리 A,B 그리고 C등급에 대해 허용되었지만, 광산생산업체는 수익성을 이유로 광산개발을 주저하고 있다.
- ▶ 또한 인도의 6월 철강생산량은 645만톤으로 전년동월의 639만톤에 비해 0.9% 증가세에 머물렀다. 이 수치는 전 세계 평균 생산증가율 1.9%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도 철강 산업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연간 1,200만톤 규모의 철강생산을 위해 인도 오디샤 지역에 USD12억을 투자하여 일관제철소를 건립하려던 포스코사는 동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또는 철강시장의 회복시기까지 투자시점을 연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중국 철광석 수입 & 가격 동향 (단위: USD/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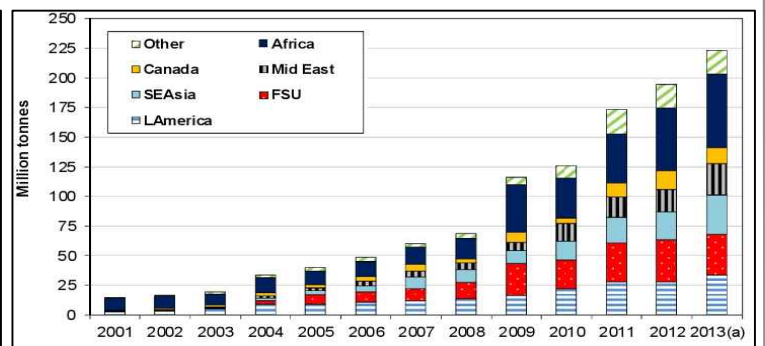
구분 (MIL MT)	수입량	주요항만 재고량	구분 USD/Day	중국 국가별 FOB 수입가격			중국 국가별 CFR 수입가격		
				인도산(63%)	호주산(61.5%)	브라질산(63%)	인도산(63%)	호주산(61.5%)	브라질산(63%)
2011	685.20	87.02	MAY	112.9	116.9	106.8	126.9	124.8	125.6
2012	745.50	92.93	JUN	101.6	106.2	95.2	116.1	114.3	114.8
증감	▲60.30	▲5.91	증감	▼11.3	▼10.7	▼11.6	▼10.8	▼10.5	▼10.8
MAY	68.56	69.85	01-AUG	117.0	121.0	108.0	131.5	129.8	129.8
JUN	62.30	72.63	08-AUG	121.0	125.0	112.0	135.8	134.0	134.0
증감	▼6.26	▲2.78	증감	▲4.0	▲4.0	▲4.0	▲4.3	▲4.2	▲4.2

TSI 철광석 가격지수										구분	평균수입가(CFR)	중국 내수가격 (66% Tangshan)
기간	BID (USD/Ton)			OFFER (USD/Ton)			MID (USD/Ton)			2011	175.2	207.0
	01-AUG	08-AUG	증감	01-AUG	08-AUG	증감	01-AUG	08-AUG	증감			
AUG13	126.75	134.00	▲7.25	127.50	135.00	▲7.50	127.13	134.50	▲7.37	2012	132.2	165.7
SEP13	124.50	132.25	▲7.75	125.00	133.25	▲8.25	124.75	132.75	▲8.00	증 감	▼43.0	▼41.3
OCT13	121.50	129.50	▲8.00	122.50	130.50	▲8.00	122.00	130.00	▲8.00	01-AUG	131.5	165.6
Q413	119.75	127.50	▲7.75	120.25	128.50	▲8.25	120.00	128.00	▲8.00	08-AUG	135.5	165.6
Q114	118.75	124.00	▲5.25	119.25	125.00	▲5.75	119.00	124.50	▲5.50	증 감	▲4.0	-
CAL14	112.00	116.00	▲4.00	113.50	117.00	▲3.50	112.75	116.50	▲3.75			

● 중국 분기별 철광석 수입 추이 (단위: 백만톤)



● 중국 지역별 철광석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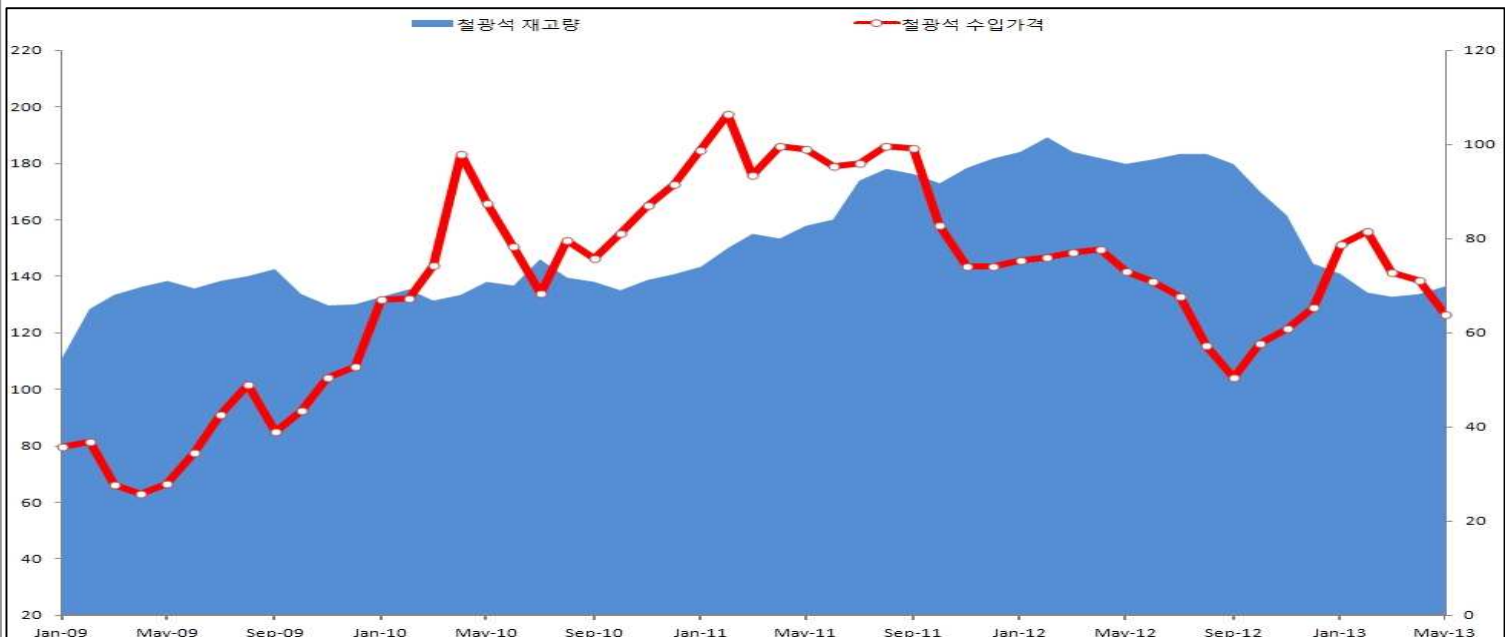


MEIC Dry Bulk Weekly Report

중국 항만 철광석 재고 현황 (단위: 만톤)

항만	수입국 별 재고현황				철광석 재고량		변동
	호주	브라질	인도	기타	26-JUL	02-AUG	
Qingdao	550	185	2	593	1,300	1,330	▲30
Rizhao	200	174	27	594	1,001	995	▼6
Caofeidian	561	220	20	284	1,144	1,085	▼6
Jingtang	313	22	23	193	536	551	▲15
Lianyungang	140	65	10	95	300	310	▲10
Tianjin	470	80	25	70	690	645	▼45
Lanshan	265	30	20	137	441	452	▲11
Fangchenggang	20	10	0	135	171	165	▼6
Zhenjiang	55	40	6	124	220	225	▲5
Dalian	53	49	0	90	190	192	▲2
Yantai	30	20	0	25	90	75	▼15
Beilun	145	80	0	55	275	280	▲5
Bayuquan	65	37	0	8	100	110	▲10
Taicang	135	0	0	40	135	175	▲40
Nantong	30	47	0	65	138	142	▲4
Zhanjiang	6	17	0	42	87	65	▼22
Luojing	79	10	0	54	117	143	▲26
Nanjing	7	0	0	4	11	11	-
Jiangyin	1	1	7	37	50	46	▼4
Xiamen	0	0	7	40	53	47	▼6
Fuzhou	11	0	0	11	30	22	▼8
Zhangjiagang	9	0	0	8	20	17	▼3
Qinhuangdao	22	3	0	2	25	27	▲2
Quanzhou	9	0	0	11	16	20	▲4
Qinzhou	0	0	0	33	36	33	▼3
Changzhou	2	0	0	20	27	22	▼5
Dandong	12	0	0	4	16	16	-
Mawan	8	0	0	0	8	8	-
Longkou	0	0	0	19	20	19	▼1
Guangzhou	0	6	0	7	19	13	▼6
Total	3,498	1,096	147	2,500	7,266	7,241	▼25

중국 철광석 항만 재고 현황 (단위: 백만톤)



→ 석탄 시장

◎ 중국 석탄 산업침체와 인도 석탄 수입 증가 ◎

- ▶ 중국의 석탄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 상반기 석탄 소비량이 전년동기대비 5.1% 증가세에 머물며 상반기 경제성장률 7.6%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발전용 연료탄 가격 역시 연초대비 10% 가까이 하락하며 USD93/Ton 수준을 기록하며 5년내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향후 중국 석탄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정책 변화 기조와 함께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물은 점점 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 반면 인도 정부에 따르면 이번 시즌 인도의 석탄 수요가 7억 6,969만톤에 이르면서 자국 생산량 6억 1,455만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요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서 이번 시즌 인도의 석탄 수요 부족분은 1억 5,514만톤으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경우 석탄 광산 개발을 위해 필요한 토지매입 환경평가 통과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생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몬순기후와 폭염 등으로 인해 광산에서 발전소까지 석탄을 운송할 철도시설등의 건설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향후 수입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 한편, 호주의 6월 석탄 수출량은 2013년 최대수준인 3,190만톤을 기록했다.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발전용 연료탄 수출량이 전월대비 350만톤 증가한 1,760만톤을 기록했다. 이로서 호주의 상반기 전체 수출량은 1억 6,800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950만톤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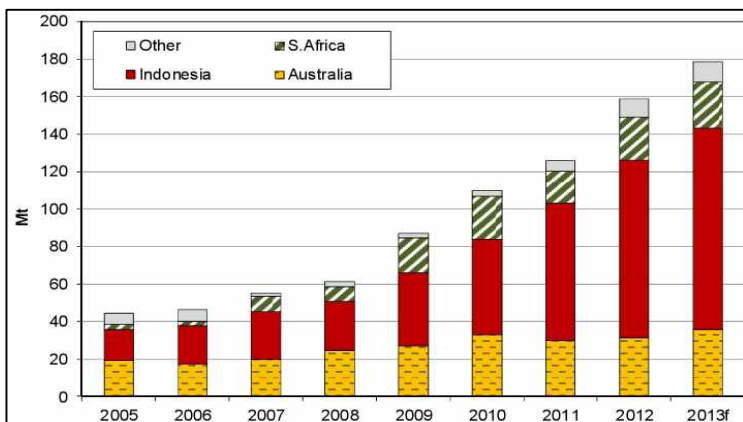
● 세계 석탄 가격 추이

연료탄 가격 (USD/TON)										원료탄 가격 (USD/TON)				
현물	뉴캐슬 (FOB)	리차드 베이 (FOB)	ARA (CIF)	칼리만탄 (FOB)	친황다오 (FOB)	선물	2013.08.08기준			현물	중국 (FOB 미국산)	중국 (FOB Prime 인도네시아산)	중국 (FOB 호주산)	중국 (FOB 러시아산)
2011	122.6	117.8	122.8	103.4	132.3		뉴캐슬	리차드베이	로테르담	2011	160.07	222.95	228.32	272.55
2012	96.2	92.9	92.5	80.7	117.6	AUG-13	76.90	71.85	75.15	2012	140.62	206.39	185.57	217.36
증감	▼26.4	▼24.9	▼30.3	▼22.7	▼14.7	SEP-13	77.10	72.60	74.30	증감	▼19.45	▼16.56	▼42.75	▼55.19
26-JUL	77.37	72.66	76.64	69.30	97.40	OCT-13	77.00	73.45	75.10	01-AUG	154.70	179.60	145.00	154.70
02-AUG	77.74	71.82	76.57	69.30	96.90	NOV-13	77.40	74.35	75.95	08-AUG	150.00	179.60	145.00	156.80
증감	▲0.37	▼0.84	▼0.07	-	▼0.50	DEC-13	77.90	75.10	76.65	증감	▼4.70	-	-	▲2.10
						JAN-14	79.75	77.15	7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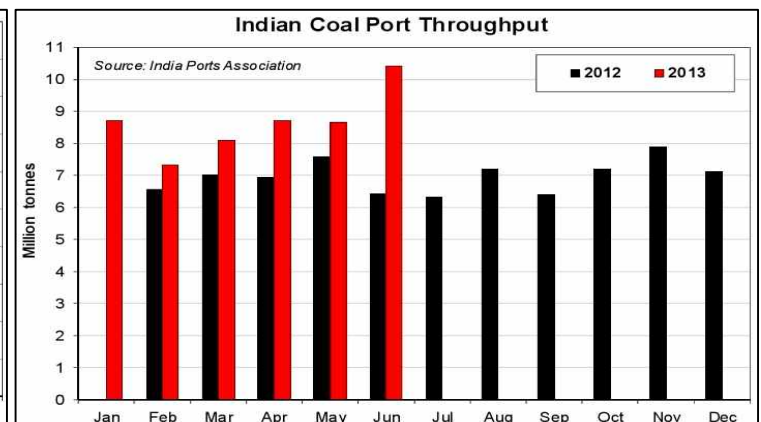
석탄 주요항만 재고 현황

단위 : 10,000톤	중국(수입국)						호주(수출국)	
	Qinhuangdao	Caofeidian	Guangzhou	Jingtang	Bohai-rim Region	합계	Newcastle	
MAY-13	544.14	374.60	252.86	96.09	1,505.56	2,773.25	130.80	
JUN-13	670.10	258.64	169.68	169.68	1,884.24	2,775.76	138.04	
증감	▲125.96	▼115.96	▼83.18	▲73.59	▲378.68	▲2.51	▲7.24	
26-JUL	736.00	540.00	294.40	191.24	2,064.8	3,826.44	151.80	
02-AUG	726.50	527.00	300.90	202.67	1,978.5	3,735.57	142.60	
증감	▼9.50	▼13.00	▲6.50	▲11.43	▼86.30	▼90.87	▼9.20	

● 인도 석탄 국가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톤)



● 인도 석탄 항만 처리량 추이 (단위: 백만톤)



→ 곡물 시장

◎ 중국 대두 수입 증가세 지속 전망 ◎

- ▶ 중국의 대두 수입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세계 최대 대두 수출국인 미국과 브라질의 수출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12년 기준 전년대비 11.2% 증가한 5,838만톤의 대두를 수입한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이며, 2013년 역시 1~5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7.3% 증가한 1,738만톤의 대두를 수입하여 이번 시즌 대두 수입량이 6,0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기준 전체 수입량 가운데 미국산이 40% 수준인 2,597만톤을 기록했으며, 브라질산 역시 2,389만톤으로 막대한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 2013년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파종면적 증가 등의 이유로 전년대비 12% 이상 증가한 9,300만톤을 기록하며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역시 10% 가까이 증가한 8,910만톤을 생산하며 이들 두 국가가 세계 대두 생산량의 62% 가량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중국 대두 수입국 가운데 미국과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2%와 39%로 81%를 점유했으나, 2012년에는 44%와 41%로 전체 점유율이 85%로 확대되었다.
- ▶ 반면 중국의 대두 생산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향후 수입 의존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농산물 무역에 저관세를 허용한 후 수분과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유전자 조작 대두가 중국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중국 내수 시장은 경쟁력 약화와 함께 가격 결정권을 상실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 대두 가격은 미국 시카고 현물거래소가 통제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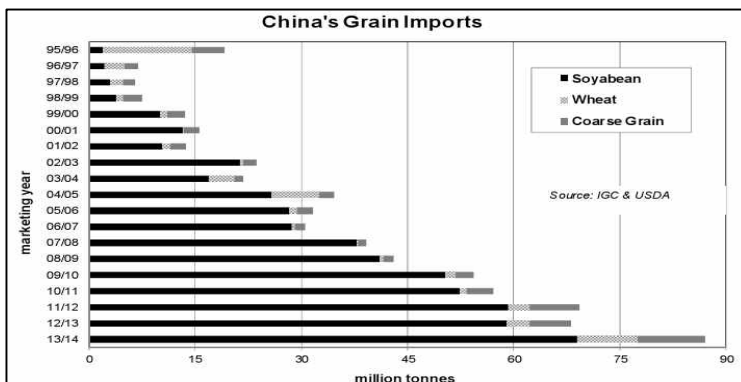
● 곡물 가격 추이

곡물 현물 가격(시카고 거래기준)				미국 곡물 수출량 동향(000톤)				
US ¢/bu	대두	밀	옥수수	구 분	대두	밀	옥수수	합 계
01-AUG	1,352.8	643.0	487.5	JUN-13	560.4	2,162.7	1,059.8	3,782.9
08-AUG	1,350.8	626.3	543.5	JUL-13	358.4	2,635.9	1,241.1	4,235.4
증감	▼2.0	▼16.7	▲56.0	증감	▼202.0	▲473.2	▲181.3	▲4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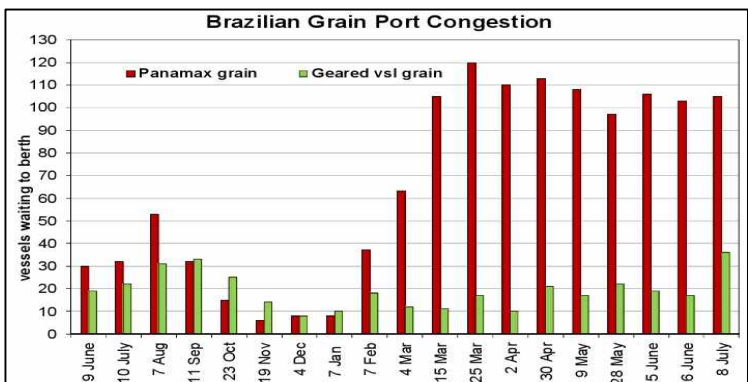
곡물 선물 가격

	대두			밀			옥수수			
DATE	시카고 상품거래소 US ¢/bu 2013.11월물	시카고 상품거래소 US ¢/bu 2014.1월물	브라질 선물시장 US ¢/bu 2013.8월물	시카고 상품거래소 US ¢/bu 2013.9월물	시카고 상품거래소 US ¢/bu 2013.12월물	런던 선물거래소 US ¢/bu 2013.11월물	시카고 상품거래소 US ¢/bu 2013.12월물	시카고 상품거래소 US ¢/bu 2013.3월물	브라질 선물시장 US ¢/bu 2013.9월물	런던 선물거래소 US ¢/bu 2013.11월물
01-AUG	1,192.5	1,198.0	1,292.8	658.0	670.5	625.3	467.0	479.8	458.9	561.9
08-AUG	1,184.3	1,189.3	1,243.8	641.3	653.8	619.4	459.8	473.3	447.5	567.6
증감	▼8.2	▼8.7	▼49.0	▼16.7	▼16.7	▼5.9	▼7.2	▼6.5	▼11.4	▼5.7

● 남아메리카 분기별 곡물 수출 추이 (단위 : 천톤)



● 중국 대두 수입량 (단위 : 백만톤)



선박 연료유

◎ 선박연료유가 혼조세, 원유선물가 하락세 ◎

- ▶ 지난 주말 미국 양적완화 지속 전망과 중동지역 정정 불안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제유가는 주중 리비아의 원유 공급 증가 소식에 하락세로 반전했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전망에 따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 ▶ 싱가포르 선사인 NOL(Neptune Orient Line)은 극심한 불황에 따른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박연료유 효율성 제고와 항로 최적화를 통해 지난해 2분기 USD1억1,620만이었던 손실규모를 금년 동기 USD3,370만으로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 ▶ 지난주 부산, 칭다오를 제외하고 하락세로 반전되었던 IFO380은 물론, 로테르담, 싱가포르, 휴스턴 등에서 하락세로 반전되었던 MDO 모두 금주에는 지난주 선박연료유가를 유지하거나 USD5 내외의 등락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선박연료유 가격 동향

IFO380(USD/톤)								MDO(USD/톤)						
DATE	부산	로테르담	싱가포르	휴스턴	도쿄	▶ 홍콩	지브랄타	부산	로테르담	싱가포르	휴스턴	도쿄	▶ 홍콩	지브랄타
2012	699.0	636.3	663.4	649.8	702.0	687.9	657.9	981.3	936.3	942.6	1,002.1	965.2	1,079.0	978.2
01-AUG	626.0	599.0	597.5	589.5	630.5	612.0	620.0	951.5	873.0	912.0	998.0	933.5	1,052.0	945.5
08-AUG	624.5	597.0	601.0	580.5	635.5	615.5	621.5	949.5	890.0	913.5	981.0	939.5	930.0	964.5
증감	▼1.5	▼2.0	▲3.5	▼9.0	▲5.0		▲1.5	▼2.0	▲17.0	▲1.5	▼17.0	▲6.0		▼1.0

- ▶ 지난주까지 게시하던 [칭다오]를 금주부터 [홍콩]기준으로 변경하여 게시
- ▶ IFO380은 항만에 따라 등락을 보이며 USD1.5~USD9까지의 변동을 보였고, MDO도 항만에 따라 등락을 보이며 USD1~USD17의 변동을 보였음
- ▶ 부산은 IFO380은 지난주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어 USD1.5 내린 USD624.5, MDO도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며 USD2 내려 USD949.5 기록

● 원유 선물가격 동향

USD/BBL	WTI		브렌트		두바이	주간동향
DATE	2013.09월	2013.10월	2013.09월	2013.10월	2013.08월	
01-AUG	107.83	106.93	109.54	108.66	104.58	▶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은 지난주 상승세가 또다시 반전되면서 2013년 9월물이 USD4.43 내려 US103.40, 10월물도 USD4.06 내리면서 USD102.87을 각각 기록하였음
08-AUG	103.40	102.87	106.68	105.36	103.59	▶ 브렌트유 선물가격 역시 상승세가 다시 반전되면서 2013년 9월물이 USD2.86 내린 USD106.68, 10월물이 USD3.3 내린 USD105.36을 각각 기록하였음
증감	▼4.43	▼4.06	▼2.86	▼3.3	▼0.99	▶ 두바이유도 지난주의 상승세가 다시 반전되면서 2013년 8월물이 USD0.99 내린 USD103.59를 기록하였음

● IFO380 VS WTI 선물가격



● IFO380 VS MDO



항만 동향

◎ 호주 석탄항만 체선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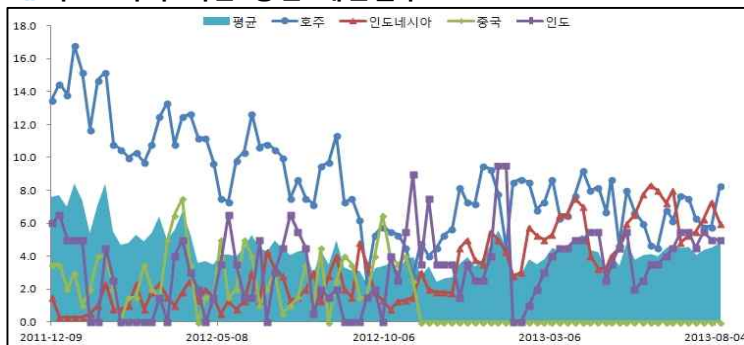
- ▶ 이번 주 전 세계 항만은 호주와 중국의 케이프 대기척수가 전주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의 선박대기일수가 전주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 ▶ 석탄 항만의 경우 동 호주 석탄 수출항인 New Castle과 Port Kembla항의 체선일수가 전주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인도네시아 주요항만은 중국 수입 감소 영향으로 체선일수가 감소세를 나타냈다.
- ▶ 철광석 항만은 브라질의 항만체선 일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양하항인 중국 Qingdao와 Xingang항도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 ▶ 한편 서 호주 지역의 대표 철광석 수출항만인 Port Hedland항의 7월 철광석 수출량이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한 2,660만톤을 기록하며 항만체선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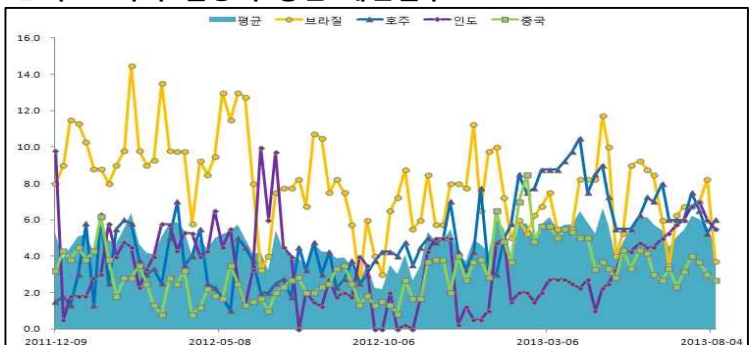
석탄 체선 동향(DAY)								철광석 체선 동향(DAY)								
구분	선적항					양하항		선적항						양하항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호주		인도		중국		
DATE	Dalrymple bay	New-Castle	Port Kembla	Taboneo	Adang Bay	Xin-gang	Vizag	Guaiba Island	Tubarao	Dampier	Port Hedland	Mormu goa	Vizag	Qingdao	Xin-gang	Baoshan
31-JUL	15.0	2.0	0.5	10.0	4.5	0.0	5.0	9.0	7.5	4.5	6.0	5.5	6.5	4.0	1.5	3.5
08-AUG	15.0	6.5	3.5	9.0	3.0	0.0	5.0	4.0	3.5	6.0	6.0	6.0	5.0	2.0	1.0	5.0
증 감	-	▲4.5	▲3.0	▼1.0	▼1.5	-	-	▼5.0	▼4.0	▲1.5	-	▲0.5	▼1.5	▼2.0	▼0.5	▲1.5

케이프 대기척수					국가별 평균 선박 대기일수						
구분	전 세계	브라질	호주	중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평균
JUN	182	28	94	46	4.0	2.2	2.9	4.1	5.4	2.6	3.5
31-JUL	137	13	71	41	4.3	1.7	2.6	4.3	5.1	3.0	3.5
08-AUG	160	11	87	51	4.6	2.2	2.6	3.5	3.1	0.5	2.8
증 감	▲23.0	▼2.0	▲16.0	▲10.0	▲0.2	▲0.5	-	▼0.8	▼2.0	▼2.5	▼0.7

주요 국가 석탄 항만 체선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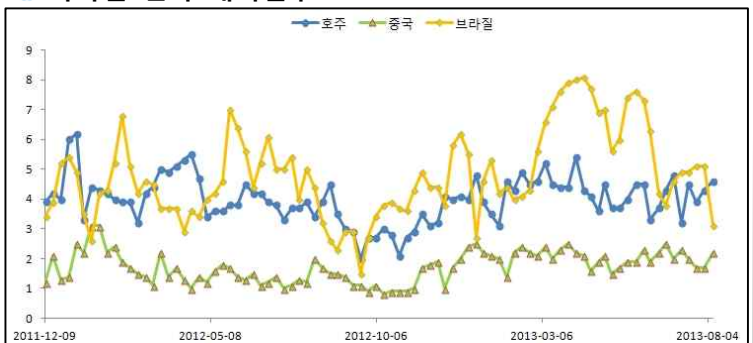
주요 국가 철광석 항만 체선일수



케이프 대기척수



국가별 선박 대기일수



선박매매 동향

◎ 신조 잠잠, 중고 활황, 해체 침체 ◎

- ▶ **[신조]**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활발하게 발주된 벌크선 신조 규모가 지난해 7월까지의 신조발주량에 비해 절반가까이 늘어났다고 발표된 가운데, 폭염과 같이 신조시장을 달구던 벌크선 발주가 금주에는 비교적 잠잠한 장세를 보이고 있다.
- ▶ **[중고]** 지난주에 예측되었던 바와 같이 금주에는 중고 벌크선 시장이 활발한 거래와 성약을 보인 가운데, 선가는 파나막스와 수프라막스를 중심으로 USD10만~USD20만 가량 소폭의 하락세를 띄었으나 휴가철이 끝나면서 약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 **[해체]** 인도의 환율과 철재가격이 지속적으로 해체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데다 라마단에 이은 Eid 연휴가 시작되어 그야말로 야드는 개점휴업상태에 놓여있고, 현금매입업자들의 적극적인 해체선 매입에 나서질 않고 있어서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신조선

MEIC 신조선 가격 (USD백만)						주간동향	
선형		25-JUL	01-AUG	08-AUG	증감		
케이프	180K	47.0	47.0	47.0	-	▶케이프는 계속해서 선가 USD4,700만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파나막스	74K	26.1	26.1	26.1	-	▶파나막스는 74K 는 지난주 선가인 USD2,610만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82K와 92K는 각각 USD40만과 USD10 올라 USD2,750만, USD2,850만을 기록하였음	
	82K	27.1	27.1	27.5	▲0.4		
	92K	28.4	28.4	28.5	▲0.1		
수프라막스	58K	24.9	24.9	24.9	-	▶수프라막의 경우 58K는 지난주 선가 USD2,490만을 유지하였고, 64K는 USD10만 떨어져 USD2,580만을 기록하였음	
	64K	25.9	25.9	25.8	▼0.1		
핸디	33K	21.6	21.6	21.6	-	▶핸디사이즈 역시 계속해서 선가 USD2,160만을 유지하였음	

● 중고선

MEIC 중고선 가격 (USD백만)								주간동향	
일자	선형(DWT)	리세일		선령 5년		선령 10년			
01-AUG	케이프(180,000)	42.4	-	33.1	-	21.0	-	▶케이프는 리세일이 USD10만 떨어져 USD4,230만을 기록하였고, 선령 5년과 선령 10년은 지난주 선가 USD3,310만과 USD2,100만을 각각 유지하였음	
	파나막스(74,000)	28.3	-	21.4	▼0.1	15.4	-	▶파나막스는 리세일이 지난주 선가 USD2,830만을 유지하였고, 선령 5년과 10년은 각각 USD20만과 USD10만이 떨어지면서 USD2,120만과 USD1,530만을 기록하였음	
	수프라막스(58,000)	26.5	▲0.1	21.0	▼0.1	15.2	-		
	핸디(33,000)	21.7	-	17.4	-	12.7	-		
08-AUG	케이프(180,000)	42.3	▼0.1	33.1	-	21.0	-	▶수프라막스는 리세일과 선령 5년이 지난주 선가 USD2,650만과 USD2,100만을 유지하였고, 선령 10년이 USD10만 떨어지면서 USD1,530만을 기록하였음	
	파나막스(74,000)	28.3	-	21.2	▼0.2	15.3	▼0.1		
	수프라막스(58,000)	26.5	-	21.0	-	15.3	▲0.1		
	핸디(33,000)	21.7	-	17.4	-	12.7	-	▶핸디는 리세일, 선령 5년과 1년 모두 지난주 선가인 USD2,170만, USD1,740만, USD1,1170만을 각각 유지하였음	

● 선박해체

건화물선 해체가격 (USD/LDT)					주간동향	
일자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중국		
11-JUL	390	385	390	305	▶방글라데시는 Eid 연휴의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조용한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철재가격 약화 등으로 USD400/LDT 회복은 아직 멀어 보임	
18-JUL	385	385	385	315	▶인도는 여전히 환율과 철재가격이 요동치며 회복에 간간힘으로 쓰고는 있으나 현금매입업자들은 그대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음	
25-JUL	385	385	385	315	▶파키스탄 역시 라마단에 이은 Eid 연휴에 주변국 해체시장 침체에 따라 적극적인 입찰이나 현금매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01-AUG	385	380	385	320		
08-AUG	380	380	380	320	▶중국은 야드에 여유가 있고 극동의 해체국가로 부각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로 해체가격은 여전히 USD320/LDT를 유지하고 있음	
증감	▼5	-	▼5	-		

신조선

◎ 잠잠한 벌크선 신조시장 ◎

- ▶ 조선업계와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 세계 발주량이 910척에 2,105만CGT(Compensated Gross Tonnage)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822척 1,431만CGT 대비 CGT 기준으로 47.1% 증가하였고, 국내 신조발주의 경우 50%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지난주까지 활발하던 벌크선 신조발주가 금주에는 LPG, PC(Product Carrier), MT(Motor Tanker) 등 선형의 신조발주로 몰리면서, 폭염에 쉬어가는 듯 벌크선 신조발주 시장 또한 중국 Kouan과 GSI에 각각 2척씩 핸디가 발주된 것 외에 잠잠한 장세를 보였다.
- ▶ 금주에는 Nanjing King Ship이 중국 Kouan 조선소에 39,000DWT급 벌크선 2척을 2015년 인도예정으로 발주하였고, Henghou가 GSI에 25,000DWT급 벌크선 2척을 알려지지 않은 금액에 2014년 인도예정으로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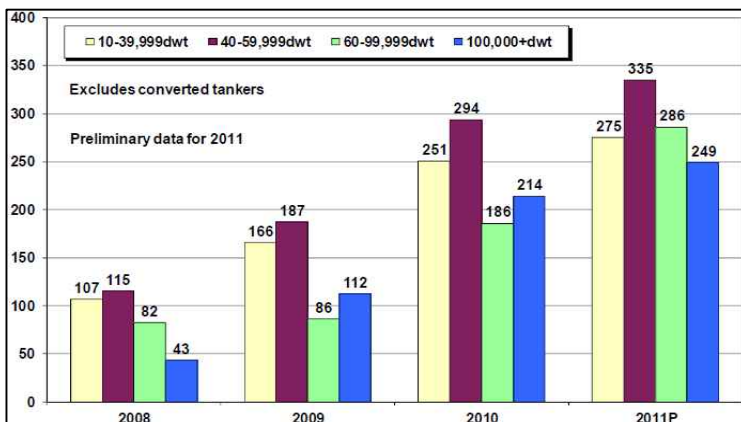
● 건화물선 발주잔량 (2013.07)

연도	케이프		파나마스		수프라마스		핸디		합 계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비율(%)
2013	81	16.1	204	16.3	167	9.3	138	4.6	590	46.3	41.5
2014	88	26.6	168	13.6	149	8.7	158	5.3	563	45.3	40.5
2015+	46	8.5	47	3.9	76	4.5	88	3.1	257	20.1	18.0
합계	215	42.3	419	33.8	392	22.5	384	13.1	1,410	11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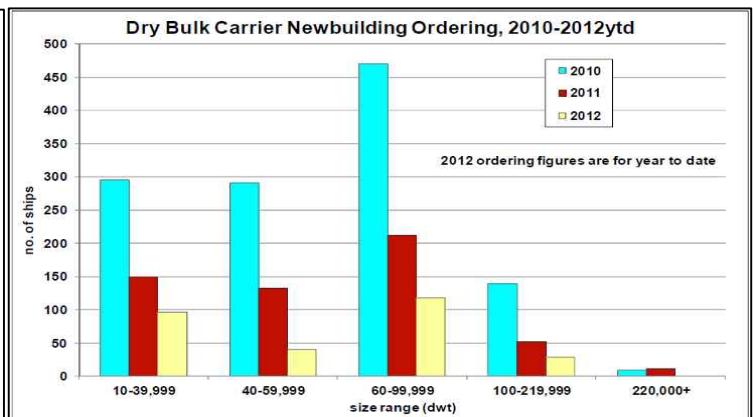
● 계약현황

월	선형	DWT	인도예정	YARD	BUYER	척수	가격 (USD백만)
8월 1주차	Bulker	81,600	2016	Tsuneishi Shipbuilding Cebu/Philippines	Great Eastern	2	-
	Bulker	81,000	2014	Japan Marine United/Japan	KGJS	2	척당 30.00
	Bulker	64,000	2015-2016	Jiangsu Yangzijiang Shipyard/China	Peter Doehle	2+2	척당 26.00
	Bulker	64,000	2016	CSSC Guangzhou Huangpu S.B./China	Wuhan Haitong Shipping	2	-
	Bulker	64,000	2016	Chengxi Shipyard/China	Dalnave Navigation	2	-
	Bulker	64,000	2015-2016	Chengxi Shipyard/China	Scorpio	3	척당 27.00
	Bulker	61,000	2015-2016	Nantong COSCO KHI Ship Eng./China	Scorpio	4	척당 27.00
	Bulker	61,000	2015-2016	Dalian COSCO KHI Ship Eng./China	Scorpio	4	척당 27.00
8월 2주차	Bulker	39,000	2015	Kouan Shipbuilding/China	Nanjing King Ship	2	-
	Bulker	25,000	2014	Guangzhou Shipyard International/China	Henghou	2	-

● 선형별 인도척수 (단위: 척수)



● 선형별 신조 발주 (2010~2012)



중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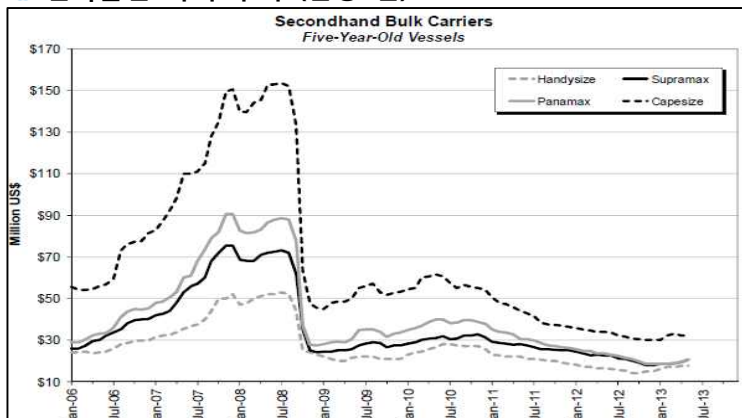
◎ 활기 찾는 중고선 거래시장 ◎

- ▶ 발틱운임지수가 요동치면서 겨우 1,000을 회복한 상황이지만 매입자들은 시황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고 신조발주와 중고선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용한 지난주와 달리 금주에는 전 선형에 걸쳐 12척의 매매성약이 보고되었다.
- ▶ 지난주 한진해운으로부터 핸디 1척을 매입했던 Pacific Basin이 일본 선주로부터 Hakodate에서 2006년 맞춤으로 건조된 핸디 벌크선 3척 POS LEADER(31,907DWT), POS KNIGHT(31,895DWT), POS JADE(31,886DWT) 등 3척을 척당 USD1,600만에 매입하였다.
- ▶ Tufton Oceanic도 Saiki 중공업에서 1997년부터 1998년에 건조된 자매선박인 UBC BREMEN(24,072DWT), UBC BATON ROUGE(24,034DWT), UBC BOSTON(23,543DWT) 등 3척을 USD620만에서 USD690만 사이의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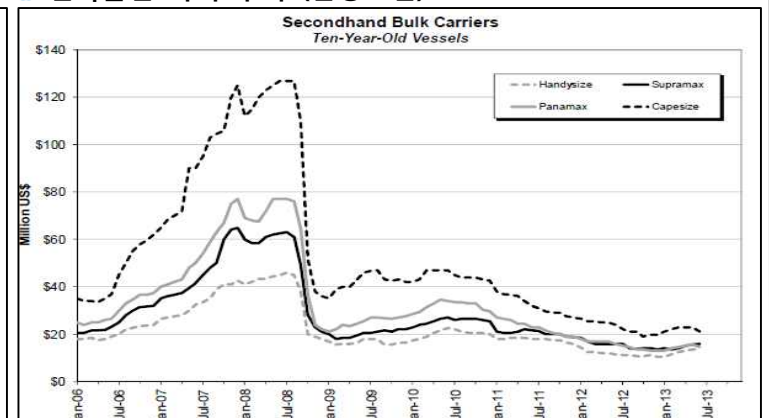
● 계약현황

월	선형	선박명칭	DWT	건조년도	YARD	BUYER	가격 (USD백만)
8월 1주차	Bulker	CAPE SHANGHAI	174,109	2007	Shanghai Waigaoqiao Shipbuilding/China	Greek	28.00
	Bulker	DIMITRIOS S	66,088	1990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Korea	AMES	9.30
	Bulker	ROBERT SCHULTE	48,225	1997	Oshima Shipbuilding/Japan	Greek	8.50
	Bulker	GREAT SUMMIT	33,745	2005	Oshima Shipbuilding/Japan	Greek	16.00
	Bulker	JIN HYANG	32,550	2010	Zhejiang Hongxin Shipbuilding/China	Korean	15.50
	Bulker	CHANG PYUNG	32,484	2010	Zhejiang Hongxin Shipbuilding/China	-	15.50
8월 2주차	Bulker	CAPE LOTUS	170,780	2000	IHI Marine United/Japan	Berge Bulk	16.00
	Bulker	YUSHO REGULUS	76,598	2006	Imabari Shipbuilding/Japan	Chronos	18.25
	Bulker	TOKIWA GLORY	55,742	2006	Mitsui Engineering & Shipbuilding/Japan	Greek	19.00
	Bulker	AZUMA PHOENIX	43,596	1994	Tsuneishi Shipbuilding/Japan	-	6.10
	Bulker	MAPLE CRYSTAL	32,394	2012	Taizhou Maple Leaf Shipbuilding/China	Norsul Shipping	18.40
	Bulker	POS LEADER	31,907	2006	Hakodate Dock/Japan	Pacific Basin	16.00
	Bulker	POS KNIGHT	31,895	2006	Hakodate Dock/Japan		16.00
	Bulker	POS JADE	31,886	2006	Hakodate Dock/Japan		16.00
	Bulker	UBC BREMEN	24,072	1998	Saiki Heavy Industries/Japan	Tufton Oceanic	6.90
	Bulker	UBC BATON ROUGE	24,034	1998	Saiki Heavy Industries/Japan		6.90
	Bulker	UBC BOSTON	23,543	1997	Saiki Heavy Industries/Japan		6.20
	Bulker	NAXOS	23,825	1995	Naikai Zosen Corp/Japan	Greek	5.30

● 건화물선 가격 추이 (선령5년)



● 건화물선 가격 추이 (선령 5년)



선박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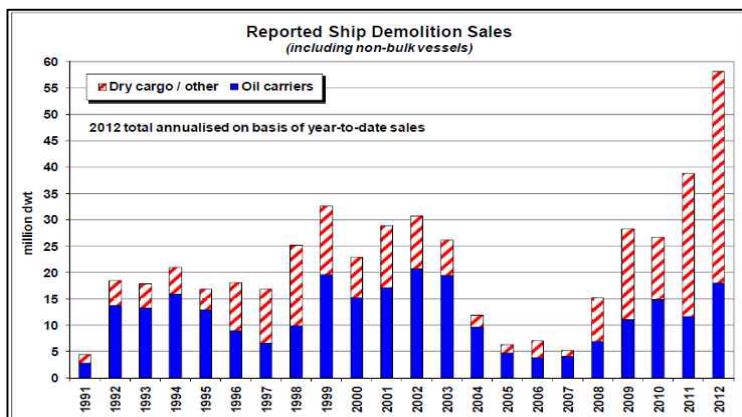
◎ 해체시장 침체 장기화 ◎

- ▶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해체선 거래를 기록하며 매입 의향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든 가운데, 인도 루피화와 철재가격의 약세가 악화되고 라마단에 이어 Eid 축제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해체시장은 개점휴업에 가까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 ▶ 파키스탄 역시 현금 매입업자들의 최소한의 매입 의지가 보일 뿐 적정 매입가격 수준을 두고 고심하고 있으며, 잠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려던 방글라데시는 다시 시장의 전반적 침체로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 금주에는 단 2건으로 방글라데시에 케이프급 VASOS(152,065DWT/18,812LDT/Mitsui/1990)가 LDT당 USD407에 매각, 수프라막스급으로 GREEN FOREST(43,117DWT/8,487LDT/Oshima/1988)가 LDT당 USD407에 인도의 매입업자에 매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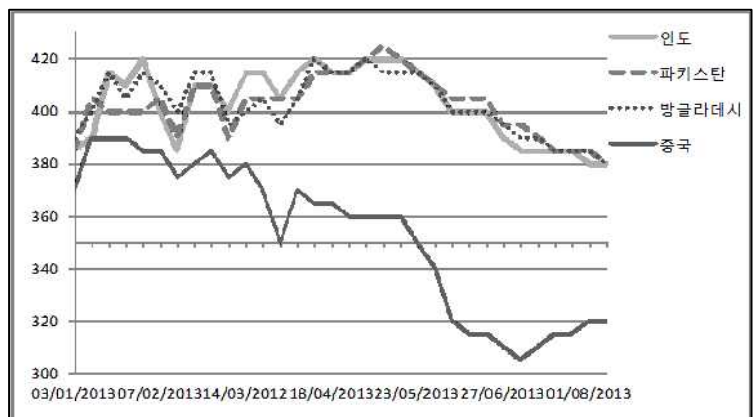
계약현황

선형		선박명칭	DWT	건조 년도	YARD	LDT	BUYER	가격 (USD/LDT)
8월 1주차	Bulker	BARBAROS G	30,650	1984	North East Shipbuilders/UK	7,218	Bangladeshi	382
	Bulker	TOR	30,435	1982	Nippon Kokan Kk/Japan	6,342	Indian	382
	Bulker	TANGO	26,811	1979	Korea Shipbuilding & Engineering/Korea	7,469	Indian	370
	Bulker	AMIR JOY	26,400	1982	North East Shipbuilders/UK	5,806	Indian	-
	Bulker	FU DA	18,585	1977	Shin Kurushima Dockyard/Japan	4,611	Bangladeshi	370
8월 2주차	Bulker	VASOS	152,065	1990	Mitsui Engineering & Shipbuilding/Japan	18,812	Bangladeshi	407
	Bulker	GREEN FOREST	43,117	1988	Oshima Shipbuilding/Japan	8,487	Indian	407

연도별 선박해체 추이 (단위: DWT백만)



스크랩 가격 추이 (단위: USD/LDT)



세계 건화물선

● 건조연도별 선대현황 (2013. 6)

	10-39,999		40-64,999		65-99,999		100,000+		220,000+		TOTAL		
BUILT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 DWT
Pre-1989	630	17.1	226	10.7	60	4.3	15	2.5	7	2.0	938	36.6	5.3%
1989~93	121	3.2	104	4.9	115	8.3	72	11.4	42	11.3	454	39.1	5.6%
1994~98	363	9.3	361	16.6	298	21.6	146	23.6	24	6.8	1,192	78.0	11.2%
1999~03	274	7.5	343	17.2	320	24.2	135	23.1	3	0.7	1,075	72.6	10.5%
2004~08	360	9.9	485	26.2	434	34.2	234	42.3	12	3.2	1,525	115.8	16.7%
2009~13	1,102	34.6	1,334	75.4	979	81.4	748	129.2	104	31.9	4,267	352.5	50.7%
Total	2,850	81.6	2,853	151.0	2,206	174.0	1,350	232.1	192	55.9	9,451	694.6	100.0%

● 건화물 선대 증가현황 (2013. 1~2013. 6)

	해디		수프라막스		파나막스		케이프		합계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NO.	DWT백만
신조선인도(A)	102	3.37	132	7.49	133	10.88	61	13.34	428	35.08
선박개조(B)	0	0	0	0	0	0	0	0	0	0
선박해체(C)	113	3.35	39	1.71	42	2.88	29	5.00	223	12.94
순증가량(A+B)-C	-11	0.02	93	5.78	91	8.00	32	8.34	205	22.14
전체선대(2013.06)	2,850	81.6	2,853	151.0	2,206	174.0	1,542	288.0	9,451	694.6
선복증가량(12.1월대비)	▼40.0	▼0.7	▲40.0	▲2.6	▲76.0	▲6.3	▲25.0	▲6.0	▲101.0	▲14.2

● 건화물 수요 추이

건화물 수요		백만톤					증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1/12
Iron Ore Trade							
Import	Japan	140.4	105.4	134.3	127.7	130.2	▲ 1.9%
	S.Korea	49.5	42.1	56.3	64.7	66.0	▲ 2.0%
	China	444.0	629.8	618.6	678.1	743.6	▲ 9.7%
Total Imports(listed)		894.1	931.8	1,041.2	1,098.7	1,151.9	▲ 4.8%
Exports:	Australia	324.8	381.1	422.6	437.7	518.1	▲ 18.4%
Coal Trade							
Imports:	Japan	191.7	161.8	184.5	174.7	184.2	▲ 5.4%
	S.Korea	99.7	103.0	118.6	128.4	124.6	▼ 2.9%
	EU	200.5	195.7	176.4	200.9	215.5	▲ 7.3%
Total Imports (listed)		827.7	846.0	955.2	1,006.7	1,097.9	▲ 9.1%
Exports:	Australia	261.3	274.6	301.0	270.1	316.1	▲17.0%
	USA	52.9	44.5	63.4	90.4	107.1	▲18.5%
	Canada	30.8	26.8	31.2	31.7	33.3	▲ 5.0%
	South Africa	63.2	62.6	68.8	64.3	76.9	▲19.6%
Total Exports (listed)		827.7	846.0	955.2	1,006.7	1,097.9	▲ 9.1%
Grain Trade							
Exports:	USA	77.7	79.2	87.6	73.1	62.4	▼14.6%
	Canada	22.2	21.4	21.3	19.9	23.6	▲18.6%
	Australia	18.4	18.0	23.2	22.6	25.3	▲11.9%
	Argentina	22.3	20.0	26.1	28.1	31.7	▲ 7.7%
	EU	30.0	23.6	28.2	20.4	22.5	▲12.8%
Total Exports (listed)		249.5	239.9	243.4	250.2	254.4	▲ 1.7%
Bauxite/Alumina		94	72	84	97	109	▲12.4%
Phosphate Rock		31	20	23	26	27	▲ 3.8%
5 Major Bulks		2,096.3	2,109.7	2,346.8	2,478.6	2,640.2	▲ 6.5%
Others		1,134.0	1,035.0	1,156.0	1,346.0	1,401.0	▲ 4.1%
Total Dry Bulk		3,230.3	3,144.7	3,502.8	3,824.6	4,041.2	▲ 5.7%

세계경제

일본 현 경기부양기조 유지전망

- 5일, 일본은행이 7~8일 금융통화 정책회의에서 경기부양책 효과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현행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제기됨
-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여 만에 처음 상승했고 직장인 여름 상여금 또한 약 3년 만에 상승, 또한 실업률은 4년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일본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세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호주 성장을 전망치 2.25%로 낮춰

- 9일 호주 중앙은행은 올해 호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5%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그 이유로 호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산업의 부진을 지목함
- 호주은행은 이날 분기 통화정책 성명서를 통하여 호주 경제성장의 주요동력이 광산투자에서 수출·내수 등 다른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밝힘

미국 연준 양적완화 철회전망

- 5일 연준 달러스 은행장은 지난 2일 발표된 7월 미 실업률이 7.4%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연준이 대규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철회할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전망을 밝힘
-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역시 지난 6월 미 실업률이 7% 정도로 떨어지면 올해 하반기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해 2014년 중반쯤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IMF 일본 경제개혁 촉구

- 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MF는 일본 정부에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율을 최소 15%까지 올리는 중기 개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 또한 IMF는 일본의 국가 부채가 내년 국내총생산(GDP)의 248%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장 친화적인 세제안과 재정 지출안을 통해 신뢰성 있는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함

브릭스 제조업PMI 위축

- 6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HSBC가 발표한 신흥국지수와 관련하여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생산지수가 평균 49.4로 전달(50.6)에서 하락했으며 브릭스 지수가 50을 밑돈 것은 2009년 4월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함

→ 주요경제지표

환율

통 화	1-AUG	8-AUG	증감(%)	2012평균
USD	1,126.0	1,112.5	▼1.20	1,126.54
EUR	1,486.63	1,484.63	▼0.13	1,447.67
JYP100	1,138.37	1,155.0	▲1.46	1,413.29
CNY	183.27	181.74	▼0.83	178.54
\$/EUR	1.3229	1.3393	▲1.24	1.2851

주가지수

	1-AUG	8-AUG	증감(%)	2012평균
KOSPI	1,920.74	1,878.33	▼2.21	1,930.37
DOW	15,628.02	15,498.32	▼0.83	12,959.04
상해종합	2,029.07	2,044.90	▲0.78	2,218.07
영국 FTSE100	6,681.98	6,259.68	▼6.32	5,729.71

리보금리

(UNIT:%)	7-JUL	7-AUG	증감(%)	YEAR AGO
1M	0.19	0.19	-	0.24
3M	0.27	0.27	-	0.49
6M	0.41	0.40	▼2.44	0.75
1Y	0.69	0.67	▼2.90	1.07

미국채 수익률

(UNIT:%)	1-AUG	8-AUG	증감(BP)	2012평균
3M	0.04	0.05	▲0.01	0.09
10Y	2.74	2.58	▼0.16	1.80
30Y	3.77	3.65	▼0.12	2.92

EU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1	2012	MAY-13	JUN-13	증감
경제신뢰지수	101.5	90.2	89.40	91.30	▲1.9
제조업PMI	52.2	46.2	48.30	48.80	▲0.5
소비자신뢰지수	-14.3	-22.3	-21.90	-18.80	▲3.1

미국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1	2012	MAY-13	JUN-13	증감
ISM제조업지수	55.2	51.7	49.00	50.90	▲1.9
ISM비제조업지수	54.5	54.6	53.70	52.20	▼1.5
소비자신뢰지수	58.1	68.7	76.20	81.40	▲5.2

주간 이슈

▶ 중국, 해상 운임-제반요금에 6% 과세

- 중국 재무부와 세무총국은 최근 2013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신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중국 국내에서 징수되는 해상 운임 및 제반 요금에 대해 6%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밝힘
- 이에따라 2012년 1월 부터 시행된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세의 징수 변경"에 대한 관련 규정은 폐지되고 동시에 매출액 공제정책이 삭제될 예정임. 따라서 국내외 선사에게 지불되는 국제 해상운임 및 각종 부대비용은 매출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매출로 인식될 전망이다
- 머스크, 에버그린 등 업체들은 새로운 세법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중에 있으며 중국 정부의 세부적인 과세 기준안이 발표될 때 까지는 현재의 인보이스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밝힘

▶ 브라질 발레 2분기 철광석 생산량 감소

-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기업인 발레에 따르면 2분기, 브라질 북부에 평균보다 길게 이어진 계절성 강우로 인하여 생산량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 분기 생산 리포트를 통하여 발레는 4-6월 기간 7,320만톤 규모의 철광석을 채굴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9.1% 하락한 수준이라고 밝힘. 1분기 발레사의 철광석 생산량은 생산목표치인 1억3,810만 톤에서 270만톤 모자란 것으로 나타남. 5월로 이어진 장마는 발레사 생산량의 1/3을 담당하는 Carajas 광산 생산이 20%로 생산량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브라질 남부 광산의 노후화에 따른 철광석 품질 하락 또한 생산량에 영향을 끼침
- 발레의 니켈 생산은 2분기 6.9% 증가하여 65,000톤을 기록하였으며 석탄은 25%상승하여 238만톤, 구리 생산량은 30% 증가하여 91,000톤을 기록함

▶ 독일, 새로운 선가산정기준 도입

- 독일 정부는 최근 Hamburg Ship Valuation Standard를 도입한다고 밝힘. 이는 선박의 가격을 산정할 때 특정시점의 중고선 시세만으로 선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 선박의 미래운임 수입을 고려하는 것이 특징임
- 이에따라 최근 경제위기 및 해운침체 등으로 저조한 시장 상황으로 시장에서 대표성이 있는 매매계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거래를 토대로 선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됨. 독일선주협회 및 독일 선박중개업협회는 본 가치산정법의 도입을 환영했으며 현실에 맞는 선박가치 산정으로 선주, 은행권 등을 보호하고 독일 해운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결정 이라고 평가함

▶ 대선조선, 남미 군함시장 진출...국내 최초

- 5일 대선조선은 현지시간 지난 2일 페루 국영조선소인 시마(SIMA) 조선소와 다목적 군수지원함(Landing Platform Dock, LPD) 2척에 대한 설계도면 및 기자재 패키지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총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번 계약은 페루정부의 해군 현대화 사업 및 기반사업 강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시마 조선소는 다목적 군수지원함을 건조하고 대선조선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설계 및 모든 기자재를 구매·공급하게 될 것임에 따라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앞선 기술 뿐 아니라 국산 기자재 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 자연재해로 인한 모잠비크 석탄 생산량 감소

- 모잠비크 재무부처는 1분기 모잠비크에 발생한 홍수로 인하여 연간 생산량의 20%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올해 7백만톤의 석탄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앞서 890만톤으로 예상된 바 있음
- 모잠비크의 석탄 수출로 인한 수익은 2분기 8,140만달러로 집계되었으며 1년전 대비 7.4% 감소함

MEIC 포커스

◎ 유전자조작 소맥 발견에 따른 영향 ◎

지난해 미국에 발생한 56년만의 가뭄영향으로 곡물 운송시장은 큰 침체를 경험했다. 2013년에는 2분기 남미 곡물 수출시장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3분기부터 시작되는 미국 곡물 수출시장 역시 미국의 곡물 생산 증가에 힘입어 건화물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유전자조작(GMO)소맥 이슈가 부각되면서 곡물 운송시장 역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오늘 MEIC 포커스에서는 유전자조작 소맥 발견이 건화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전자조작 소맥(GMO)

유전자조작 소맥은 2006년 미국의 살충제 제조기업인 몬산토가 개발한 GM 'MON71800' 종자에서 시작되었다. 대두와 옥수수는 이미 유전자조작 물질의 상용화가 진행되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면적의 76배에 해당하는 1억 3,400만 헥타르에서 생산되고 있다. 특히 전체 25개 유전자조작 작물 생산국 가운데 미국의 재배면적은 6,400만 헥타르로 전체의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맥의 경우 사람과 생태계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논란이 있는 GMO를 인간의 주식인 소맥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 밀려 미국 정부는 GMO 재배를 금지했다. 그러나 2013년 5월 미국 주요 소맥 재배지인 오리건주에서 약 7년여 만에 GM 'MON71800' 종자가 발견되었다. 몬산토사가 1998~2005년까지 상품개발을 위해 시범 재배했던 과정에서 자체적인 번식을 통해 오리건주까지 흘러들어간 것이다. 미국 정부는 GMO 소맥 발견 즉시 관계당국의 조사를 실시했으며, 미식약청(FDA)은 시험재배 당시 GMO 소맥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일반 소맥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중에 판매된 오리곤산 소맥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2. 주요 수입국가들의 반응

미국 식약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소맥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의 우려감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일본은 6월부터 미국산 소맥 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기존 체결했던 2만 4,926톤의 수입 계약까지도 취소하는 강력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매년 약 500만톤의 소맥을 수입하는 일본은 이중에서 60% 인 300만톤을 미국에서 구입하며, 대략 80만톤 가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오리곤주 인근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 공식 서한까지 보내 소맥 수입 재개 의사를 문의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GMO 소맥 발견은 한 농장에서 발생한 특이한 사건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유전자조작 소맥도 시장에서 발견된 바가 없다는 설명과 함께 수입재개를 요청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산 수입 소맥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중이다. 우리나라 식약청 역시 지난 5월 30일 미국산 소맥에 대한 수입 단계 검사 강화 등 대응마련에 고심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미국산 소맥 120만톤을 수입중이며 이 가운데 20% 가량인 46만톤이 오리건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 세계 소맥 수출입 현황

2012년 기준 전 세계 소맥 수출량은 1억 3,800만톤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의 20%에 해당하는 2,750만톤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가 2,000만톤 수준으로 2~4위를 기록 중이다. 소맥 수출국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산 소맥은 주로 유럽과 남미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골고루 수출되며, 흑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맥은 북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으로 주로 수출된다. 반면 호주산 소맥은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집중되어 있다.

세계 최대 소맥 수입국가는 이집트이다. 이집트는 빵을 주식으로 소비하는 국가로 연간 900만톤 내외의 소맥을 미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뒤를 이어 이란과 알제리 등 빵을 주식으로 사용하는 중동 국가들의 소맥 수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연간 700만톤 가량의 소맥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 최대 소맥 생산국 중국이 수입 비중을 늘리면서 새로운 수입 강대국으로 부상 중이다.

3. 유전자 조작 소맥이 건화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전자 조작 소맥 발견이 수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연합과의 소맥 수출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에 따른 수출제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 시즌 미국의 소맥 수출량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최근 중국에 발생한 서리 및 홍수 피해 영향으로 소맥 생산량이 2,000만톤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의 이번 시즌 소맥 수입량이 기존 300만톤 수준에서 1,000만톤까지 증가하면서 이집트를 뛰어넘어 단번에 세계 1위 수입국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소맥 수입 증가의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국가는 거리상 근접한 호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역시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이미 지난 7월까지 중국의 미국산 소맥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0배가량 증가한 345만톤을 기록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소맥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어 미국의 수출이 제한된다면, 건화물 시장이 받는 충격은 생각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2000년도에 발생한 미국의 옥수수 유전자 조작 생산물 발견 당시에 미국이 받았던 충격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 역시 USD80억에 이르는 수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미국의 소맥 수출이 제한된다면 호주나 캐나다 그리고 흑해지역 소맥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를 대체해야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흑해지역의 경우 건조한 기후 영향으로 재배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러시아의 생산량이 기존 전망치보다 100만톤 감소한 5,300만톤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호주 역시 전년보다는 약 300만톤 가량 증가한 2,500만톤 수준의 소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증가된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금번 유전자 조작 소맥 발견으로 인해 미국의 소맥 수출이 제한된다면, 대체 수입선을 찾기 어려워 상당수 트레이더들이 소맥 수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즉, 소맥 운송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건화물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해운시장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외생변수에 의해 시장의 등락을 반복해왔다. 지난 2011년 러시아의 소맥 수출 중단과 2012년 미국에 발생한 56년만의 최대 가뭄 등은 곡물을 주로 수송하는 파나막스와 수프라막스 시장의 시장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2013년의 경우 중국의 소맥 수요 급증과 함께 유전자 조작 소맥 발견은 또 다시 해운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미국의 주장대로 한날 해프닝에 불과한 일이며,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 이번 시즌 소맥 운송시장은 상당한 신규수요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전자 조작 사태가 확산되며 미국 소맥 수출에 제약이 발생한다면,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또다시 곡물 운송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

MEIC 패널리스트 현황

케이프	네오차터링, 삼정해운, 일도해운, 장수해운, Rodskog
파나막스	네오차터링, 에이스차터링, 일도해운, 장수해운
수프라막스	아라해운, 일도해운, GS차터링, 영해해운
핸디	아라해운, 일도해운, GS차터링
신조선 가격	자이로마리타임, 장수에스엔피, 한바다코퍼레이션, 코리아마리타임, 웨어브릿지글로벌
중고선 가격	자이로마리타임, 장수에스엔피, 킴스마리타임, 한원마리타임, 코리아마리타임, 웨어브릿지글로벌

※ 본 자료는 해운시장의 이해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소재 또는 증빙이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 본 리포트는 추후 유료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Contact Details

주 소: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 한국선급 7층 해운거래정보센터
연락처: TEL (070) 8799-8022 FAX (070) 8799-8059 E-mail meic@bdi.re.kr / meic@krs.co.kr